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정○○ (M/35)
- 종교: 불교
- 진단명: 궤장암
- 과거력: 특이소견 없음
- 입원 경과: 2018년 첫 진단 후 항암 치료 25회 시행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없이 암의 전이가 진행 되었으며 복부와 허리 통증으로 좌식 생활만 가능하였고 물 정도만 마시는 상태로 본원 호스피스로 전원 의뢰되어 호스피스 치료에 관한 설명 후 가족 동의하에 본원 호스피스로 입원함.

- 입원 기간: 2020.02.28 ~ 03.20, 2020.03.21 ~ 03.27
- 입종일: 2020.03.27

<입원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3~4
- 의식 상태: 명료
- 배뇨/배변: 자연 배뇨, 배변
-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수는 정상 범위, 체온은 발열 동반
- 신체 검진: 불안, 복부/허리 통증, 수면장애, 복수, 발열
- 삼관: 케모포트

진료 부분

<병력>

2018년 궤장암 진단 이후 2019년 11월까지 항암제 치료함. (과거 특이 질환 없었음)
 2019.12 간 전이, 복막파종, 뼈 전이 진단
 2020.02.28. 일반병동 입원 → 본원 2020.3.5. 호스피스 병동 입실(전 병원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 이력으로 14일간 격리함.)

- 돌발성 통증 조절 빈도 증가

(치료 계획 및 중재)

- 통증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교육함.
- 평균 통증 점수 및 돌발 통증의 빈도, 강도를 감안하며 진통제 용량 조절함.
- 마약성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를 병행하여 사용
- 통증 및 불안이 높아져 완화적 진정에 대한 동의 후 완화적 진정 시행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1. 통증

(사정)

- 지속적 통증 호소
- 통증으로 눕지 못하고 좌식 생활

(반응)

- 통증 호소에 따라 약물을 증량하였으며, 초

기에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정도로 조절되기도 했으나, 입원 기간 계속되면서 불안이 통증 호소가 되고 수면장애가 생겨 밤에만 완화적 진정 적용함.

안하게 잘 잤어요."라며 불안과 수면장애가 조절되고, 신체적 고통이 지속되었지만 정서적 지지로 환자, 가족의 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함.

2. 불안, 수면장애

(사정)

- 통증 등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함,
-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함,
- 가족(어머니)도 호스피스 병동 입실 시 심리적 불안이 있었음.

(치료 계획 및 중재)

- 심리 상담 연계
- 수녀님을 통한 적극적 영적 돌봄
- 증상에 대해 안심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 교육
- 완화적 진정
- 가족의 불안도가 높아 가족 지지

(반응)

- 완화적 진정으로 밤에는 수면을 하면서 "편

3. 복수 및 감염증 관리 (발열)

(사정)

- 복수 배액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음.
- 전원 전 CRP 상승과 복부 검진 상 압통 및 반동성 압통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SBP)에 준해 치료 받고 있었음.
- 체온 36.5~37.6℃ 발열 가끔 있음.

(치료 계획 및 중재)

- 간헐적 복수 배액
- 항생제 투여
- 필요 시 해열제 투여

(반응)

- 환자가 복수나 감염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 일정 기간 항생제 투여하고 복수 배액은 필요시에만 복수 천자를 통해 배액 함.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주로 복부/허리 통증 호소함.
- PRN 진통제 평균 4회/일 투여됨.
- 돌발성 통증 시 통증 점수: 평균 4-7점
- 얼굴표정 바뀌지 않으면서 통증 호소함.

(계획 및 중재)

- 개인적이며 비언어적인 통증 표현 방식을 수용한다.

- 통증의 심리적 악화요인과 완화요인을 사정한다.
- 통증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교육한다.

(평가)

- 통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
- 진통제 투여 후에도 잦은 복부 통증 지속되어 진통제 용량 증량함.
- 불안이 통증을 야기하고 통증으로 수면장애가 생기고 또 불안이 생기는 증상이 지속되어 밤에만 완화진정을 적용하고 밤에 잘 수

면하면 통증 호소가 감소함.

2. 불안/수면 장애

(사정)

- 완화 진정으로 깊은 수면을 하자 깨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모습 관찰됨.
-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한 모습임.
- 환자, 보호자 병식 있으나 현 상태에 대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함.
- 종교적으로 의지하려고 함.

(계획 및 중재)

- 종교적 돌봄으로 불안감 표현하도록 하며 영적 지지 제공한다.
- 다학제 간 지속적 방문과 면담으로 정서적 지지 제공한다.
- 공예요법, 마사지, 미술 상담 치료 등 참여토록 하여 불안감 완화를 돕는다.
- 호소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감정표현에

공감해준다.

- 문제 재기 시에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 어머니가 사진을 통해 환자의 추억하기를 도울 수 있게 하였고 만다라 색칠하기, 스케치 북에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함.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불교 신자라 외부 영적 돌봄 제공자(스님) 방문이 어려워 아쉬움으로 남음.
- 자주 방문하는 이모가 수녀님의 영적 지지를 위해 자주 방문하며 지지함.
- 환자는 음악요법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으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함.
- 어머니는 음악요법을 통해 연주도 하며 환기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함.
- 어머니가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먼저 임종준비를 문의하며 준비함.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M/35, 고졸, 불교
- 충남 금산 거주
- 건강보험, 입원 당시 소득, 부채, 개인보험, 재산 없음.
- 2남 중 차남으로 출생
- 성격: 쾌활하고 활동적, 캠핑을 즐겨함, 깔끔하고 정리정돈에 철저함, 다소 예민함.
- 17세, 아버지 저혈당 쇼크로 사망함.
- 무교이나 팔에 성모마리아 문신이 있었으며 천주교 세례에 대한 의사 밝힘.
- 직장: 부여 소재 수질 관리회사에서 일함. 이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같은 계

열의 회사로 이직함, 이후 한 달 만에 췌장암 발병하여 퇴사함.

- 가족관계: 17세 때 부 사망. 연년생인 형과 친밀함.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함. 이모들과 친밀함.
- 대인관계: 친구가 많음. 코로나19로 인해 못 본지 오래됨.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 있었으나 발병 1년 후 헤어짐.
- 경제 상황: 병실비 1일 12만원 지원받는 실비보험이 있음. (면책 기간 있음) 환자가 모아둔 돈, 모가 모아둔 돈, 환자의 암보험 진단비 등 사용하였으며 현재 1,000만원 정도의 잔액 있음, 고정 수입 없음.

<가족력>

- 모: 무교, 충남 금산 거주. 환자의 주 돌봄자, 주요 의사 결정자
직장생활을 계속하였으나 환자 간병하며 일하지 않음.
관계 지향적인 성격, 대화 나누기를 좋아함.
환자에게 헌신적, 지지적
자매들과 친밀하며 도움을 받고 있음.
- 부: 환자 17세 때 저혈당 쇼크로 사망. 사업 실패로 보중 빛 생기며 스트레스가 컸다고 함.
- 형: 1살 위의 형. 대전 거주, 직장, 기혼, 자녀 없음.
- 이모, 외삼촌 등: 환자, 어머니에게 지지적
- 작은아버지: 환자를 위한 도움 제공 (정보, 경제적 도움 등)

<사정>

1) 문제 사정

- 디스트레스 높음
- 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 임종 및 장례 준비 미흡함.

2) 강점 사정

- 가족: 어머니와 형이 환자에 지지적임.
- 환경: 호스피스팀원이 환자의 다면적 문제에 관심이 많음. 수녀님이 환자의 영적 요구 충족 가능
- 상황: 가족(어머니, 이모)이 환자의 천주교 세례를 원하였고 원내에서 대세 가능함.

<개입>

1) 환자의 정서적 지지

- 개인 상담 어려워하는 환자를 위해 음악요법 연계하여 기분 표현, 환기 유도함.

* 음악요법

- 첫 만남

환자는 어머니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표현이 적고 말소리 또한 작아 귀 기울여야 알아들을 수 있었음. 환자는 모든 장르의 음악 좋아한다 하였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가슴에 대고 라이어 연주하니 눈을 감고 이완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음. 라이어 연주하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악기 소리가 너무 좋다 하였고 연주 마친 뒤 환자가 직접 소리 내어 보는 시간도 함께 함. '환자가 연주를 잘하지 못하여도 모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며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며 악기에 관심이 많았음. 환자는 악기 소리와 함께 깊게 잠이 들었고 보호자도 악기 연주하며 자신의 마음 힐링하는 시간 함께 함. 환자가 본래 말수가 적었고 함께하면서 옛날이야기도 하며 많은 대화 나눈다 하였는데 어머니가 안정된 모습 가지려 노력하는 것 같았음.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악기 남겨 놓고 기회 될 때 연주 하라고 하니 무척 좋아하였음.

- 두 번째 만남

환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면 환자가 악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함. 자신도 잠깐 연주를 해주었는데 하며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어 하였음. 환자가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대화를 나누진 않았고 악기연주 들려줌. 잠을 못 잤는데 조금 자는 모습 보이고 호흡을 잘 따라 하며 집중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며 이완되었음. 어머니가 편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며 좋아하였고 환자는 이완 음악과 함께 좀 더 깊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 함께함. 외출하고 금방 다시 병원에 왔지만 집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좋았다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짓는 어머니의 얼굴에 아쉬움이 많아 보였음.

2)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

- 각 팀원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3) 장례 준비 도움

- 장례 및 임종 준비사항 안내

<결과>

1) 어머니와 면담

- 환자의 개인력, 가족력, 경제적 부분 사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고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힘들었던 점들 모두 쏟아냄.
- 호스피스팀과 자매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지냄.
- 초기 면담 시 장례 준비에 대해 언급하였고

모가 지혜롭게 장례를 준비하여 무사히 장례를 치름.

2) 환자와 면담

- 코로나 접촉으로 14일간 격리 후 3인실 사용시 여러 사람의 방문에 불편한 듯한 모습이었으나 점차 적응하는 모습 보임. 충분히 마음 표현하도록 돕기에 개입 시간이 짧았고 여건상 여러 개입하지 못함.

3) 코로나19로 인한 아쉬움

-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병실 방문을 통한 영적, 정신, 심리적인 지지 및 다수의 지속적인 요법연계를 통한 환기의 시간 필요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계하지 못하여 아쉬움.

원목 부분

<환자 사정>

환자는 최근 3년 개인회사 운영을 하였고 특이 증상 없이 아프기 1달 전까지 일을 하였다고 함.

무슨 일이든 성실하고 말이 없고 주말이면 주로 산행 및 캠핑을 즐겼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형과 절에 가면 마음이 평화스러웠다고 함. 평소 어른 고경할 줄 알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고 건강과 식사 잘하는지 살폈다 함. 아버지와 사별 후 형에게 의지하였고 암 진단 후 형과 해결하려 했으며 어머니는 항암 치료 중 알게 되었다 함. 천주교 신자인 이모가 때때로 방문하였다.

- 환자의 정신 심리적 상태: 수면장애가 있어 완화적 진정을 밤에 하면 오전까지 수면하고 오후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데 어머니 육아일기, 사진, 만다라 색칠, 그림 그리기 등으로 심리적인 평화를 유지함.

- 환자의 영적인 상태: 작은아버지들이 불심이 좋아 불공 기도에 의지하고 이모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심리적으로 의지함.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과 우주 만물 창조에 매우 흥미로워했음.

- 환자 어머니의 영적 상태: 절에 함께 다니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큼. 여동생이 기도를 해주면 위로가 됨.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큰아들에게 고마움. 아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길 적극적으로 원함.

<영적 진단>

- 죽음 수용과 희망
- 신체기능 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

<영적 돌봄 계획>

영적 진단에 따른 환자 돌봄과 더불어 젊은 아들을 돌보는 예민한 어머니의 심리적 영적

돌봄을 계획.

1) 죽음 수용과 희망을 위한 영적 돌봄

- 기도를 통한 돌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느님께 기도로 지지함.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에 초대받음이라 알려주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천사가 인도하여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알려줌.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해주면 "아멘"으로 함께 하며 안정됨.

어머니와 이모가 천주교 대세를 원했으나 집

안 어른들 결정이 되지 않고 상태 악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해 아쉬움.

- 공감적 경청과 지속적 만남을 통한 돌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하는 기간 동안 외롭고 슬펐다고 하여 들어주며 공감해줌.

어머니와 형과의 추억(육아일기, 사진)을 말할 때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감.

2) 우울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돌봄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 1인 상주 외에 형과 이모가 방문할 수 있게 해주고 이모가 기도해주는 것과 대화를 즐길 수 있게 해줌. 만다라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 격려함.

마무리

환자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형의 따스한 마음에 평화를 많이 누리며 떠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표현하며 어머니와 형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준 형에게도 감사하다 함. 신부님, 수녀님, 이모

가 기도 많이 해 주어서 감사하고 하느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주어서 행복하고 하느님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 이라는 말에 매우 기뻐함. 임종 후 주님께서 받게 비춰주는 빛만 보고 잘 따라가라고 지지함.

